정원주 회장 취임…“종도 자긍심 키워낼 것”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7 · 28대 회장 이취임법회

10월 2일 조계사 대웅전서
제28대 임원진 함께 소개
“선명상과 불교 세계화로
종도 자긍심 갖게 할 것”

김민재 기자 madeye9711@hyunbul.com


정원주 중앙신도회 신임회장.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10월 2일 서울 조계사에서 제27 · 28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앞으로 중앙신도회는 선명상 확산을 이끌어가며 신도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신도 개개인의 포교역량 강화를 통해 종도로서의 자긍심을 키워내겠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10월 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제27·28대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제28대 중앙신도회장으로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이 취임했다.

이날 정원주 제28대 중앙신도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신도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중앙신도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내년이 중앙신도회 70주년이 된다. 선배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신도회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 임원들과 많은 회의를 거쳤다”“앞으로 불교를 세계 만방에 떨칠 수 있도록 함께 손잡고 같이 가는 중앙신도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종정 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옛 소나무 비바람 마음으로 서서, 맑은 거문고 흰 문의 음률을 연주하네. 가장 좋기는 가을 하늘의 달이요. 빛과 어울려 잎잎이 깊도다”고 전했다. 또한 ‘천재설소 만복운흥(千災雪消 萬福雲興)’가 적힌 휘호를 내리며 축하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오늘 취임하는 정원주 회장은 그동안 지역과 우리 사회에서 큰 리더쉽과 깊은 신심을 보여줬다”며 “종단 신도를 대표하는 중앙신도회장으로서 종단과 불교부흥에 선도할 수 있도록 중앙신도회를 잘 이끌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교원장 선업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열암곡 부처님 바로모시기’와 ‘선명상 대중화’ 등 종단 원력 사업들을 중앙신도회가 선도하며 종단외호와 포교역량 강화를 위해 앞장서 달라”고 주문했다.

재가자 대표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헌승 국회정각회장과 홍철호 대통령불자회장은 축사를 통해 정원주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종단을 외호하고 중앙신도회를 여법하게 이끌어가길 발원했다.

제28대 임원진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정원주 회장은 △선임직 부회장 △감사 △교구신도회장 △신도단체 대표자 △특별자문 △자문위원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며 제28대 집행부 출범을 알렸다.

정원주 회장은 법회에 앞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임명장을 받았다. 진우 스님은 “중앙신도회가 지금보다 활성화되어 종단의 신도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게 해달라”며 “화합된 신도단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비구니 어산의 삶과 업적…100년 돌아보다

10월 20일까지 한문화체험관 3층
최초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
범패 기록·소장품 등 자료 선봬

관습적으로 굳어진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 뛰어난 기량으로 ‘어산’ 발전에 이바지한 비구니 어장들. 여성 수행자이자 예술인으로 한 시대를 이끌었던 비구니 어산의 100년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전시회가 마련됐다.

조계종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와 청량사(주지 도법 스님)는 10월 1일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지하 공연장에서 기획 특별전 ‘비구니 어산 백년을 회고하다-자비의 꽃비 내리고 감로가 베풀어지다’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은 10월 2일부터 20일까지 진관사 한문화체험관 3층 아름다움에서 대중에 공개되며, ‘어산 장엄세계의 수행자’ ‘부처님의 환희로운 법의 말씀에 하늘과 땅이 여섯 가지로 진동한다-여섯 가지 법의 악기’ ‘자비 대도량의 장엄기물’을 주제로 비구니 어산의 삶과 업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다수 전시된다. 특히 최초의 조계종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의 범패 음성기록과 전승 계보, 냄비뚜껑 바라·15세 전후로 수했던 착복가사·오불관 등 귀중한 소장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전시에서는 동희 스님의 스승인 송암 스님의 유물과 불교의례에 사용되는 청량사 어산 남채백 스님의 가사, 형엄 스님이 쓴 ‘요집’, 석용 스님의 나발·법라, 하씨 상궁 발원 청도기 등이 선보여져 의미를 더했다.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은 “제가 공부하던 시절에는 비구니 염불승이라면 좋지 못한 시선을 받았다. 비구니로서 범음, 범패를 이어가는 것은 참 어려웠다. 그럼에도 용기와 가르침을 준 스승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덕분에 굳건히 이겨낼 수 있었다”며 “오늘 이 자리가 후학들이 범음, 범패의 뿌리를 이어가고 정진해 나가는 데 큰 인연이 되길 바란다. 후학과 도제 양성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알고 힘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비구니 어산어장 동희 스님이 전시장을 돌며 범패 기록 및 소장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내 불교문화유산 전담 부서 신설을”

9월 30일, 국회의원회관서
불교문화유산 보존 세미나
주경 스님, 기조발제서 제언



“현재 지정문화유산 중 불교문화유산은 35%에 이른다. 그 가운데 중요도가 높은 국보와 보물의 경우는 55% 이상이 불교문화유산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불교유산 보존·전승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불교문화유산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사진〉은 9월 30일 불교중앙박물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간사들이 공동주최한 ‘불교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사업 시행 10주년을 맞아 다량소장처의 변화와 성과를 조명하고, 불교유산 보존·관리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불교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주경 스님은 불교유산의 대표성, 고유성, 공공성, 현재성에 집중해 역사성과 그 가치를 역설했다. 스님은 “다수의 불교유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을 정도로 탁월한 가치의 유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지정 불교문화유산은 사찰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며 “불교유산은 그 질과 양에 있어 한국 문화를 대표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국가유산청 내에 이를 전담하는 부서가 아직도 없다는 게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유산 보유 사찰의 지원은 원형 보존에 한정돼 있어, 활용과 전승을 위한 정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주경 스님은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함이 마땅하지만 나아가 불교유산을 향유할 수 있고 전통을 계승할 수 있는 방안으로도 확대돼야 한다”며 “국가유산의 고귀한 유산적 가치가 일만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되고 향유돼 국민 삶에 감동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정책이 변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유산 다량소장처인 본·말사 성보박물관 현황도 진단했다. 주경 스님에 따르면 성보박물관은 1987년 통도사 성보박물관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건립됐다. 2000년대에는 전국 주요 본사급 사찰로 확대됐고, 주요 사찰과 문중에서도 보장각, 유물관 등으로 불리는 수장 중심의 시설을 구축했다. 사찰과 문중에서 설립한 성보박물관(55개소)과 수장고(6개소)는 통칭해 ‘다량소장처’로 알려져 있고, 현재 총 61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주경 스님은 성보박물관의 발전 방향으로 △성보박물관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본사 성보박물관의 거점 수장 시설을 확충해 말사 등 주변 지역 사찰 권역의 불교유산까지 보존·관리하는 체계 구축 △20여 년이 지난 성보박물관은 정밀진단으로 개보수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국민 문화 향유를 위한 공공적 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주경 스님 “최근 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되고 있는 시점에서 성보박물관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며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로 공공적 활용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진흥원, ‘간헐적 몰입’ 화요강좌

10월 15일 다보빌딩 다보원서
조우석 책추남 TV 대표 초청

진흥원이 ‘간헐적 몰입’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가 10월 15일 오후 7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BBS) 3층 다보원에서 조우석 책추남(책 추천해 주는 남자) TV 대표를 초청해 ‘간헐적 몰입, 왜 중요한가’를 주제로 화요열린강좌를 연다. 조 대표는 교재 〈간헐적 몰입〉을 통해 현대인에게 필요한, 몸과 마음, 정신이 조화로운 몰입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강사로 나선 조우석 대표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석사, 하버드 케네디 스쿨 공공행정학 석사 MPA를 마쳤다. 1만 권이 넘는 독서량을 바탕으로 책을 추천하는 유튜브 채널 ‘책추남TV-책추천해 주는 남자TV’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는 △하버드 케네디스쿨 입학사정위원 △굿윌 인더스트리스의 전략 컨설턴트 △구루 데이비드 아커 교수의 글로벌 파트너사의 총괄 부사장직을 역임하기도 했다.

강의는 무료이며, BBS-TV와 유튜브 ‘헬로붓다tv’에서도 강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강의 문의 및 참가 신청은 전화(02-719-2606)에 연락하거나, 네이버 카페(화요 열린 강좌, http://cafe.naver.com/dharin.cafe)을 참고하면 된다. 김민재 기자

탄소비움 자비채움 ‘그린붓다데이’

비구니회, 10월 19일 환경대축제
다양한 체험 부스 · 환경콘서트도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가 10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환경대축제 ‘그린붓다데이’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사회적 의미의 지구환경운동과 전법의 의미를 담아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 문제 등 환경에 불자들이 관심을 갖고 일상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재식에서는 울산 불교환경연대 대표 천도 스님이 ‘불교와 자연, 생명’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비빔밥으로 준비된 점심공양 후 오후 2시부터는 환경콘서트가 시작된다.

전국비구니회 블루로터스의 식전 연주회를 시작으로 △일체 생명을 위한 울림, 불교 사물과 소리 공연 △모두가 곧 하나인 인연(법룡사 나라연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 바람의 빛깔) △우리 자신을 위한 춤사위(별빛 사리 송우주, 송승현) △활기찬 생명력 그리고 새명의 에너지(어쏘티드) △그린붓다의 자애심과 베푸는 기쁨(정율 스님) 등의 공연이 이어진다.

공연 후에는 울림과 발원을 주제로 5분 명상이 진행된다.

온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인생네컷 선물권 부스 △바다 유리 키링 만들기 △재미있는 분리배출 △환경수수께끼 도전하기 △멸종위기종 가면 만들기 △사찰음식 요리 체험하기 △자연이 담긴 보이차 시연 △EM 만들기 체험 등 2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된다. 대체육과 와플 등 특별한 간식 코너도 준비됐다.

12시 관내 메따 공연장을 찾으면 애니메이션 영화 〈윌-E〉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임은호 기자

연예인전법단, ‘전국사찰노래자랑’ 연다

10월 19일 화계사 특설무대서
“사찰 신도 화합 및 인재 양성”

사찰 신도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 화합의 장을 이끌 ‘전국사찰노래자랑’이 열린다.

조계종 연예인전법단(단장 우봉 스님, 조계종 기획실장)이 10월 2일 서울 연예인전법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화계사를 시작으로 사찰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국사찰노래자랑’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찰 재정 부담 절감을 위해 임혁 연예인전법단 회장을 비롯한 연예인전법단 회원들이 ‘재능보시’를 결심해 눈길을 끈다. 이한규 사무총장과 조한국 기획이사 등이 연출을 맡고 MC로는 불자 개그맨 김주철 씨와 BBS불교방송 백팔가요 진행자 목비 씨가 나선다. 아울러 임혁 회장, 김국환·진미령 부회장이 심사위원 및 초대 가수로서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임혁 회장은 “전법단에 소속된 불자 연예인으로서 재능보시는 당연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로 대중과 친해지고 신도들이 화합해 대중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예인 전법단장 우봉 스님은 “현재 전국사찰노래자랑 예선에 3명의 대학생을 포함해 50여 명이 접수했다”면서 “이번 행사로 참신한 젊은 세대 불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사찰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도들이 모여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불자 연예인들에게도 좋은 기회다. 사찰 행사에 꾸준히 출연하며 불자들에게 불자 연예인·가수임을 홍보해 스스로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기자

대불청 회장에 이길수 씨 단독 입후보

대불청 선거관리위원회
9월 23일 확정 공고 발표



대한불교청년회 제33대 중앙회장 후보로 조계사 청년회 이길수 씨〈사진〉가 단독 입후보했다.

대한불교청년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하재길)가 9월 23일 제33대 중앙회장 선거 단독 입후보자로 이길수 씨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길수 후보는 현재 건축사사무소 대표를 맡고 있으며, 조계사 청년회장, 대한불교청년회 부회장, 대한불교청년회 만해백일장 위원장을 역임했다. 또한 조계사청년회 소리마루 합창단, 불화반 동아리 등을 창단하기도 했다.

이길수 후보는 소신서를 통해 “대한불교청년회는 100년이 넘은 역사를 지닌 전국을 대표하는 단체”라며 “지회와 지구, 지구와 중앙이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불청 조직화’를 1번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다. △각 지구 및 지회청년회 지속적 방문(최소 1년에 2회) △지역사찰 지구·지화장과 동행방문 및 매월 합동 법회 개최 △신규청년회 방문 및 조직화 △주요 위원회 조직화 확대가 그것이다. 이외에도 불교문화 컨텐츠 개발 및 미디어 홍보를 공약했다.

한편, 대한불교청년회 제33대 중앙회장은 10월 20일 제81차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임기는 2년이다. 김민재 기자